



멋스러운 호수공원길에서 낭만 '만끽'

은파호수공원

은파호수공원은 대표적인 도심 속 관광 쉼터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각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봄에는 만개한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여름엔 숨었던 연꽃이 습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가을엔 떨어지는 붉고 노란 낙엽이 바스락 발에 밟히며, 겨울엔 하얀 백설이 마치 설국에 있듯 우리에게 멋스러움을 다가온다.

은파호수공원은 본래 미제지라 불리던 농업용 저수지였다. 우리말로로는 쌀밭방죽이다. 은파호수공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미제방죽, 미제저수지, 미동저수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지금 은파호수공원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겨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물빛다리, 음악분수,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과 조깅코스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조성돼 있고 최근에는 별빛다리(1.1km)도 완공돼 은파호수공원 전체를 데크를 따라 걸으며 지친 마음과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다.

또한 은파호수공원의 진면목은 야간 투어이다. 물빛다리, 물빛다리광장, 음악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향연은 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에 더해져 별빛다리는 은은한 마치 초롱이 밝혀진 고궁을 혼자 거니는 듯한 아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조용한 곳을 거닐고 싶은 연인들에게는 훌륭한 데이트 코스가 될 수 있다.

군산호수공원(청암산)

군산호수공원은 군산시민의 물줄기 역할을 해온 저수지로 45년간 보존된 자연 덕분에 청정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청암산은 높이 117m로 나지막하면서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뤄 등산 및 산책을 즐기려는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하다. 청암산 구불길을 걷다보면 코 끝에 와 닿는 호수 내음과 녹음이 울창한 수풀의 그윽한 향기로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다. 또한 수변 산책로는 보존 가치가 높은 다양한 습지 야생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로써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제격이다.

또한 군산호수공원에는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다.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 원하는 관광객에게는 제격이다.

군산시간여행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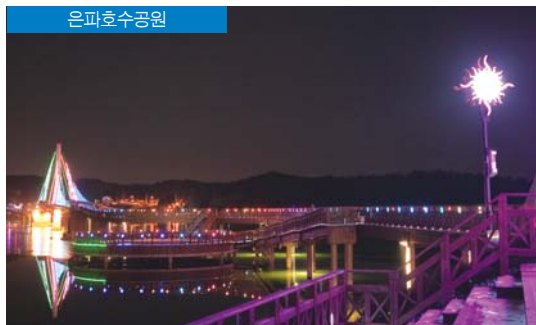
군산은 일제 강점기 수탈의 전초 기지로써 당시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쌀은 군산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졌다. 현재 군산에는 부잔교, 식량영단, (구)조선은행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에 힘들게 살아왔던 일반 서민들의 삶과 향정의 역사를 배우기 원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교육여행의 목적지로 군산은 손색이 없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역사박물관은 '역사는 미래가 된다'는 신조로 과거 해상물류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을 조명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

깊어가는 가을 군산을 둘러보면 쉽고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다.

'조금만 지나면 겨울인데...' 라는 생각과 너무 빨리 흘러가는 가을을 붙잡기 위한 조급한 마음이 난다면 군산의 이곳, 저곳 걸음을 오른쪽으로 걸어가며 군산의 정취를 느껴보자.



은파호수공원

밤에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등서 뿜어져나오는 빛의 향연 '일품'

코로나19 이후 안전 여행으로 군산호수공원이 '제격'

시간여행마을 등서 역사체험도

시, '별 따라 걸어요' 운동 진행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

하고자 건립됐다. 박물관 1층 어청도 등대 모형을 시작으로 바다와 문화 등을 주제로 해양 물류 역사관, 바다 여행, 바닷가 친구들, 바다 도시 군산을 주제로 어린이 박물관, 근대 도시, 탁류의 시대 등으로 구성된 근대 생활관 그리고 분기별 테마 전시 공간인 기획 전시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었다. 신흥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군산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 지역이었다. 이 건물의 형태는 근세 일본 무가(武家)의 고급주택 양식을 띠고 있다. 목조 2층 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타짜' 등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되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고려 말 최무선 장군이 함포를 이용하여 왜선 500여 척을 물리쳤던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에 개관한 해양공원이다. 향만을 끼고 있는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지금은 퇴역한 군대 장비 13종 16대를 볼 수 있다. 월남전 등에 투입됐던 위병함을 비롯한 해군함정, 장갑차, 지주포, 전투기 등 최일선에서 활동하다 퇴역한 육·해·공군 장비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별 따라 걸어요' 운동

최근 군산시 숲길 수변 산책로 및 관람시설 등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보행(진행)방향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등 상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은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보행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호간 교차 보행 시 비말전파 우려까지 생김에 한쪽으로 진행 방향을 유지하는 우측통행, 즉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른쪽으로 돌기 '별 따라 걸어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

오른쪽으로 돌기 '별 따라 걸어요!' 캠페인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에티켓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별들의 공전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 즉 시계 반대 방향(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에서 캠페인의 명칭을 착안했다.

시는 산책로나 박물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돌기 캠페인을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른쪽으로 돌기 캠페인을 제안한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은 "산책로 및 관람시설에 진입할 때 무분별한 보행 방향으로 인해 관람불편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오른쪽으로 돌기 캠페인은 코로나19시대에 비말 차단은 물론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는데 꼭 필요한 운동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호수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